

## 유·불·도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순사상의 의의

황 준 연

전북대학교 · 교수

I. 머리말 - 범주론(카테고리)  
II. 과학, 종교 그리고 철학

III. 동양 전통철학의 갈래들  
IV. 동양 전통철학에서 바라본  
대순(大巡)사상의 의의

### I. 머리말 - 범주론(카테고리)

철학사에서 취급하는 문제 가운데 범주론(範疇論; theory of category)이 있다. 일반적으로 ‘범주’(category; Kategorie)란 ‘최고의 유(類) 개념’에 속하지만, 보통은 어떤 ‘부문’(部門) 혹은 ‘술어’(述語)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Pythagoras) 학파에 의해서 서로 대대적인 관계가 있는 개념 즉 유한(有限)-무한(無限), 일(一)-다(多), 동(動)-정(靜) 등의 카테고리가 정하여 졌다. 이후 플라톤(Platon)의 유(有; on), 동(同; tauton)의 개념을 거쳐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저술 『오르가논』에 이르러서 실체(ousia), 질량, 성질, 관계, 능동과 피동 등의 10가지 범주가 정하여졌다.

범주론은 칸트(I. Kant)에 이르러서 정교하게 발전하였는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3단 논법의 형식에 따라서 ‘12가지 카테고리’(twelve categories)로 분류하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칸트의 12가지 카테고리 분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것은 세 항목의 내용이 4개의 세트로 구성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 ① 양(量; quantity)의 문제-통일성(unity), 다수성(plurality), 전체성(totality)
- ② 질(質; quality)의 문제-실재성(reality), 부정성(negation), 한계성(limitation)
- ③ 관계(relation)의 문제-실체성과 우연성(substance-and-accident), 인과관계(cause-and-effect), 상호관계(reciprocity)
- ④ 양상(modality)의 문제-가능성(possibility), 현존성(existence), 필연성(necessity)

칸트의 이와 같은 ‘12 가지 카테고리’ 이야기는 다소 난해한 것으로 받아지겠지만, 그의 유명한 저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전통 사회의 중국철학에는 범주가 없는가? 중국 고대철학의 전통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카테고리를 만날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논어』를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어휘(술어)가 고려되어야 한다.<sup>2)</sup>

- a. 도(道) b. 천(天) c. 인(仁) d. 예(禮) e. 신(信) f. 의(義)
- g. 지(智) h. 심(心) i. 화(和) j. 덕(德) k. 선(善) l. 문(文)
- m. 효(孝)

또한 어떤 사람이 송대(宋代) 신유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에는 다음

1) Bertrand Russel,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Unwin University Books, 1969), p.681.

2) Roger T. Ames, Henry Rosemont, Jr., *The Analects of Confucius* (Ballantine Books, 1998), pp.45-58.

과 술어들을 만나게 된다. 말하자면 다음의 예는 성리학 즉 송학(宋學)의 카테고리이다.<sup>3)</sup> 만일 이하의 같은 카테고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송학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만큼 카테고리의 문제는 중요하다.

- a. 태극(太極) b. 이(理) c. 기(氣) d. 심(心) e. 성(性)  
f. 정(情) g. 의(意) h. 인심(人心) i. 도심(道心) 등

이상은 주로 유교사상의 카테고리인데, 마찬가지로 중국 전통사회의 불교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술어들이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 a. 삼계(三界) b. 육도(六道) c. 연기(緣起) d. 견성(見性)  
e. 색(色) f. 고(苦) g. 돈오(頓悟) h. 반야(般若)  
i. 열반(涅槃) j. 해탈(解脫) k. 소승(小乘) l. 대승(大乘)  
m. 진여(眞如) n. 법성(法性) o. 법계(法界) p. 불성(佛性) 등

이상과 같은 어휘가 중국철학의 카테고리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한국 전통사상의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1889~1975) 교수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 제시된 표현을 빌리면, 전통사회에 있어서 한국문명은 중국문명과 상호 복합체(compost)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상호간에 상당한 친근성(closer affinity)이 있다.<sup>4)</sup>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에, 범주 문제는 철학의 중요한 관심대

3) Roger T. Ames와 Henry Rosemont, Jr.는 『논어』를 읽기 위하여 카테고리 - 이들은 'lexicon'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카테고리라 같은 의미이다. - 를 설정하였다. 필자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송학(宋學)의 카테고리를 설정하였다. 이하 불교사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아놀드 토인비, 강기철 역, 『圖說 역사의 연구』 (1972년 수정판) (일지사, 1978), p. 93. 역자 강기철은 원문의 'affinity'를 '친연(親緣) 관계'라고 번역하였다. 필자는 이를 '친근성'이라고 번역한다. 원문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re is a still closer affinity between the Sinic Civilization on the one hand and the Korean, Japanese, and Vietnamian Civilization on the other hand."

상일 뿐 아니라, 대순(大巡) 사상의 연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무릇 모든 철학 혹은 종교사상은 결국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고, 언어는 일정한 카테고리의 체계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 II. 과학, 종교 그리고 철학

사람이 살아감에는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믿음이 필요하다. 인간 존재에 과학과 종교는 2대 필수 존재물이다. 어떠한 사회, 국가 그리고 개인도 이 구조물을 비켜 갈 수 없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조직 속에서는 물론, 조직의 밖에서도 인간 존재를 규정한다. 문자를 모르는 인간도 과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령 뉴턴(I. Newton)의 중력(重力; gravity)의 법칙이 무엇인지 모르는 농부라 할지라도 풀을 벨 때에는 무릎을 낮추고 낮 질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안다. 이는 경험에서 얻는 과학적 지식이다. 또한 종교 서적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일정부분 종교적 믿음을 소유한다. 과학과 종교는 2대 필수 존재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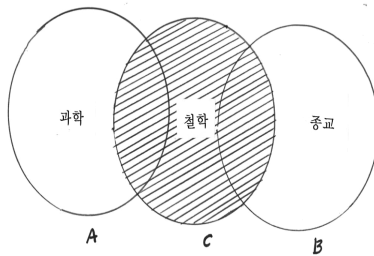
그렇다면 철학은 무엇인가? 철학은 문명의 창조물이다. 세계의 역사에는 여러 문명들이 존재하였다. 대표적인 문명으로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을 들 수 있다. 철학을 의미하는 ‘필로소피아’는 그리스어의 ‘필로스’(philos; 사랑)와 ‘소피아’(sophia; 지혜)의 합성어로 알려져 있다. ‘필로소피아’는 그리스인의 용어이지만, 그들만이 지혜를 사랑한 것은 아니다. 고대 중국인들도 지혜를 사랑하였고, 철학적인 사색을 전개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철학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견해가 있다. 금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 1872~1970)은 자신의 저술 『서양철학사』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생과 세계에 관한 관념으로서 우리가 ‘철학적’(philosophical)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두 가지 요소의 산물이다. 하나는 전승적인 종교적 및 윤리적 관념이요,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로 ‘과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탐구이다. 이 두 가지요소가 철학자들의 체계 속에 얼마만한 비율로 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 개개인에 따라 크게 달랐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는 것이 철학의 특징이다. ‘철학’이란 넓은 의미로도 쓰이고 혹은 좁은 의미로도 쓰이는 용어이다.... 나는 철학이란 신학(神學)과 과학 사이의 중간 영역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Philosophy, as I shall understand the word, is something intermediate between theology and science.)<sup>5)</sup>

릿셀의 이 말은 철학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된다. 그는 인간의 인식을 명확한(definite) 지식과 독단적인(dogma) 주장으로 나누고, 과학을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신학(종교)을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중간에 ‘무인도’(無人島; No Man's Land)가 있다. 릿셀은 이처럼 철학이란 과학과 신학의 중간 지역에 있는 그 무엇으로 파악하였다.

릿셀의 견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이상의 그림이 저자가 이해한 버트런드 릿셀의 견해라면, 저자가 생각하는 ‘철학’이란 C의 영역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여 A의 영역은 과학에 속하며, B의 영역은 신학(종교)에 속하고, 그 중간의 빛

5) Bertrand Russel, op. cit., p.13.

금친 겹친 부분이 철학의 영역이다.

과학은 검증이론(verification theory)에 의지하는 사유체계이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검증되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명확한 지식이란 수치(數値) 혹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될 수 있는 지식이다. 이 경우 과학이란 개별과학으로서 자연과학을 의미한다. 만일 어떤 지식을 가리켜 ‘definite’한 것이라고 말하려면, 그것은 증명할 수(define) 있는 것이라야 한다.

과학의 기준에 의하면 검증될 수 없는 예술, 종교, 윤리, 철학, 형이상학은 모두 헛소리(넌센스)에 속한다. 그런 것들은 도대체 ‘참되다,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sup>6)</sup> - 이기상의 이와 같은 주장은 독일 철학자 루돌프 카르납(Rudolf Carnap; 1891~1970)의 ‘논리실증주의’를 반영한다. 이기상의 용어는 독일어를 번역하고 있다. 의미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Sinn’인데, 의미가 없다는 것은 ‘sinnlos’이고, 의미가 있다는 말은 ‘sinnlich’이다. 그는 예술 등을 ‘헛소리’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Unsinn’(미침, 제정신이 아님, 넌센스; 의미 기준을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다.<sup>7)</sup> 용어의 이해에 조심할 일이다.

과학의 세계는 건조하다. 이 세계는 계량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치(數値)만이 활개 친다. 여기에서는 시(詩) 한 편을 읽어도 의미가 없다.(sinnlos)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과학 밖의 영역도 포함한다. 과학의 세계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도 과학 밖의 다른 세계에서는 의미가 있다.(sinnlich) 한국인들이 토종 시인 미당(未堂)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읽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비난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는 과학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신학(종교)은 도그마에 의지하는 사유체계이다. ‘dogma’는 교의(敎義), 정론(定論), 독단(獨斷)의 뜻을 지니는 단어이다. 모든 종교의 교

6) 이기상, 『철학노트』 (까치, 2002), p.170.

7) Ibid., p.169.

리는 일정 부분 독단에 의지하고 있다. 집단 합의 체계에 의하여 내려진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종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주장은 검증될 수 없다. 그와 같은 주장이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한,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단에 의한 권력(행동)이 동원될 때, 종교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 - 여기에서 종교가 위험하다는 말은 1995년 3월 20일에 발생한 도쿄의 지하철 테러사건과 같은 종류를 말한다. 지하철 차내에서 화학 병기로 사용되는 신경가스 ‘사린’(Sarin;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합물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킴)이 살포되어 승객과 역무원 등 12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등 외국인을 포함한 5,50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종교단체인 움진리교(オウム真理教)가 있었다. 움진리교는 1984년에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가 설립하였고, 그는 1995년 5월 야마나시현의 시골에서 체포되었다. 아사하라 쇼코는 테러사건의 주범으로, 2006년 9월 일본의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사형판결이 확정되었다.

철학은 인간 이성(理性; reason)에 기반을 둔 정신활동이다. 그것은 과학과 종교의 중간지역에 속하는 그 무엇이다. 과학이 지니는 물가치성, 몰인격성, 몰미성(沒美性) - 과학의 검증원리에 의하면 가치의 영역인 ‘미’(美)의 세계도 의미가 없다. - 을 보완 혹은 치료하는데 철학이 공헌한다. 철학은 과학적 지식의 의미를 묻는다. 동시에 철학은 종교적 지식의 의미를 묻는다.

철학은 의미를 묻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으나,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밝힐 수는 없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은 말한다.

비록 모든 가능한 과학적 물음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의) 문제들이 여전히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느낀다.<sup>8)</sup>

세계의 위대한 종교는 철학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철학이 약한 종교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등은 철학의 탄탄한 기반위에 자리 잡고 있다. 철학의 기반이 약한 종교는 일시적인 바람잡이로 끝나기 쉽다. 중국 후한(後漢) 시대 태평도(太平道) 및 오두미도(五斗米道)는 한때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났으나 곧 소멸되었다. 이들 종교는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탄압으로 사라졌지만, 소멸의 원인(遠因)으로 미신(迷信) 숭배 등 취약한 철학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교단의 사상 일부는 도교(道敎)에 흡수되어 살아남았다. 미신적인 요소(예: 부적符籙을 불에 살라서 물에 타서 마시는 행위)가 제거된 건전한 부분을 말한다. 조선왕조 후기에 일어난 민족종교들이 한 때 들불처럼 번졌으나 그 생명력이 약해진 것은 철학적 기반이 취약한 때문이다.

철학은 물음을 던지는 학문이다.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철학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물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철학자들은 ‘없음’(無)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며, ‘있음’(有)에 대하여도 물음을 던진다. - 내가 여기에 지금 있다는 것(being)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내가 우주 속에 없더라도(non-being) 우주는 과연 의미가 있는가? - 철학자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한다. 그들은 또 ‘아름다움’(美)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 물음은 인간의 특권이며 지식 추구의 욕망을 반영한다. 동물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우주의 존재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동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 과연 우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까?

전통적으로 철학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의 물음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 ②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8) 비트겐슈타인, 『트락타투스』 6.52 cf. Ludwig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Routledge & Kegan Paul, 2002), p.88.



- ③ 우리의 생애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도덕적 인간이란 어떠한 인간인가? 어떤 정부(政府)가 가장 바람직한 정부일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처음의 영역은 존재(being)에 관한 문제이다. 학자들은 이를 ‘존재론’(ontology) 혹은 ‘우주론’(cosmology) 또는 ‘본체론’이라고 부른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는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가시적(可視的)인 우주를 의미하지 않는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는 ‘있음’(有)과 ‘없음’(無)에 관한 것이다. 이 영역을 ‘형이상학’(metaphysics)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지식(knowledge) 혹은 인식(認識)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앎’의 세계에 관한 내용이다. 학자들은 이를 ‘인식론’(epistemology)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영역은 가치(value)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 영역은 삶의 과정에서 바람직한(desirable)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학자들은 이를 ‘가치론’(theory of value)이라고 부른다. 이 영역은 도덕 혹은 윤리학(ethics)과 중첩되며,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 혹은 미학(美學; aesthetics)의 영역을 포함한다.

철학의 영역을 놓고 현대 미국의 철학자 로버트 노지크(Robert Nozick; 1938~2002)의 분류를 소개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로 철학을 나누었다.<sup>9)</sup>

- ① 형이상학 (Metaphysics)
- ② 인식론 (Epistemology)
- ③ 가치론 (Value)

첫 번째 항목에서 노지크는 자아(self) 혹은 자아의 주체성에 대하여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What am I?) 혹은 ‘자아란 무엇인가’(What is

---

9) Robert Nozick, *Philosophical Explan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pp.ix-x.

a self?) 그는 더 나아가 결코 대답을 기대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없는 것에 비하여 있다는 것은 왜인가’(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노지크의 이와 같은 질문은 존재 혹은 근원에 대한 물음이며, 전통적인 측면에서 우주론(cosmology)에 속하는 것들이다.

두 번째 항목에서 노지크는 지식(knowledge) 그리고 회의주의(skepticism)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는 동시에 지식을 취급함에 있어서 증명(evidence)과 정당화(justification)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세 번째의 항목에서 노지크는 자유의지(free will)와 결정론(determinism), 윤리학, 생(生)의 가치에 대하여 논술한다. 이 항목의 중심은 윤리학에 있다. 이상과 같은 로버트 노지크의 ‘철학 3분법’은 위에서 말한 전통적인 구분과 일치한다.

철학의 성격을 놓고 말하면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질적(質的)인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서양철학과 중국철학에서 ‘우주론’ 분야는 비슷하다. ‘인식론’은 서양철학이 많이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논리학, 언어철학, 과학철학 분야는 서양철학의 이론이 크게 발달하였다. ‘가치론’ 분야는 중국철학에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철학의 특징으로 ‘수양론’이 있다. 전통사회의 학자들은 말끝마다 ‘성인’(聖人) 운운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보통의 인간도 일정한 수양 방법을 통하여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맹자(孟軻)는 입만 열면 요순(堯舜)을 말하였다고 전한다.(『맹자』 등문공 上) 필자는 ‘성인’(the saint)이 부담스럽다. 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차마 ‘성인’까지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주경’(主敬), ‘거경’(居敬) 혹은 ‘주정’(主情) 등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달성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진다. -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편에 이르기를,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이 곤(鯀)이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이 봉(鵬)이다. 봉새는 날개가 어찌나 큰지 하늘의 한쪽을 덮은 구름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봉새는 날개를 치며 9만 리 상공으로 날아오른다. 매미(조螭)와 작은 비둘기(학구鸞鳩)가 봉새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하필 9만 리를 날아서 남쪽 바다로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

였다.<sup>10)</sup> 필자는 9만 리를 날아서 성인이 되려는 사람을 비웃을 자격은 없다. 그러나 필자는 매미와 비둘기처럼 9만 리를 날고 싶지 않다.

철학의 기술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철학’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일이다. ‘철학’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으며 사람마다 사용하는 내용이 다르다. 철학의 세계는 언어로 표현되며, 설명 가능한 논리를 지닌다. 유불도(儒佛道)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중국철학도 ‘철학’의 범주(카테고리)에 속하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종교는 설명 가능한 세계와 설명이 불가능한 세계를 포함한다. 가령 천당과 지옥의 유무, 기적(奇蹟)의 발생, 개인적 체험 등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동양철학(중국철학)은 서양철학에 비하여 종교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유교’ 혹은 ‘도교’를 철학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뒤섞여서 몽툰한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철학이 서양철학에 비하여 덜 논리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중국에는 중국만의 특수한 논리가 있다고 고집을 부려도 안 된다. 형이상학적 명제는 언제나 자의적(恣意的)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정부분의 보편성을 찾는 일은 모든 철학자가 해야 할 일이다.

‘대순철학’(大巡哲學)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동양철학(중국철학)에 속하며, 동양철학의 범주(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대순사상’ 속에 내재한 보편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잘 키워나갈 때, ‘대순철학’은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철학사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야 국지성(局地性)을 극복하고, 글로벌(global)한 영역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대순사상이 유불도(儒佛道)의 동양철학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방면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10) 안동립 역주,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 (현암사, 1993), p.30.

### Ⅲ. 동양 전통철학의 갈래들

앞에서도 암시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필자가 언급하는 ‘동양철학’은 대체로 중국철학의 그것임을 밝힌다. 중국 전통철학의 3대 영역으로 유불도(儒佛道)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찬의 『전경典經』에 의하면, 증산(甌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여러 차례 ‘유불선’(儒佛仙)을 언급하고 있다. ‘유불선’ 이외에 무교(巫敎)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한 사서(史書)와 고대 중국인 중 저명인사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증산사상의 대체(大體) ‘유불도’의 카테고리(범주)에 들어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논의의 편의상 유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그리고 도교(仙)적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유교철학의 영향

증산이 읽은 책 중에서 대표적인 유교 경전은 『사략史略』, 『통감通鑑』, 『대학大學』, 『소학小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 『시전詩傳』, 『서전書傳』, 『주역周易』 등이다. 이상의 언급은 대순진리회 편찬의 『전경典經』(1989년)에 의한 것이다. - 이하 『전경典經』에 대한 언급은 같은 책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책은 유교 경전 가운데에 중요한 4서 3경이 모두 들어 있다. 그렇다면 대순 사상의 중요한 내용이 유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증산이 체계적인 유교 경전 교육을 받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증산이 한문에 능하였고 일시 서당 훈장노릇을 하였지만,<sup>11)</sup> 그것이 체계적인 교육을 말하지는 않는 듯 하다.

11) 김탁, 『증산 강일순』 (한국학술정보, 2006), p.57.

유교에 관한 한, 증산의 교육은 주로 중국고대의 선진(先秦) 유가철학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비록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읽었다고 하지만, 송대 주자학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다. 다만 소옹(邵雍; 康節; 1011~1077)의 『관매법觀梅法』을 불살랐다는 기록과, 소강절에 대한 여타 언급을 볼 때에, 그가 소옹의 상수학(象數學)에 깊은 관심을 가진 듯하다. - 1908년 11월, 증산은 차경석의 집에 머물렀다. 어느 날 황극수(皇極數)를 보신 후에 중도들을 모으고 각기 소원을 물었다.<sup>12)</sup> 여기에서 ‘황극수’는 소옹의 상수(象數)와 관련이 있다.

4서 3경 중에서도 강증산은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이 확실하다.<sup>13)</sup> 이 책도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다만 그가 언급한 『대학』이 어떤 판본인지 잘 알 수 없고, 따라서 구주(舊注)인지 혹은 신주(新注)인지도 알 수 없다.

1907년 10월 어느 날, 증산은 차경석에게 돈 삼십 냇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어떤 법을 베풀고 다음과 같이 시(詩)를 읊었다.

溪分洙泗派 峰秀武夷山  
活計經千卷 行裝屋數間  
襟懷開霽月 談笑止狂瀾  
小臣求聞道 非偷半日閑<sup>14)</sup>

이 시(詩)는 조선조 중기 율곡 이이(李珣)의 문집 『율곡전서栗谷全書』 권33, 연보(年譜)에 보이는 시이다.<sup>15)</sup> 원문은 다음과 같다. “溪分洙泗派 峰秀武夷山 活計經千卷 生涯屋數間 襟懷開霽月 談笑止狂瀾 小子求聞道 非偷半日閑”이다.(원문중의 ‘生涯’가 ‘行裝’으로, ‘小子’가 ‘小臣’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2) 대순진리회, 『전경典經』 (1989), 교운 제1장 54. -이하 『전경』이라고 칭한다.-

13) 『전경』 교법 제2장 25, 동 51.

14) 『전경』 행록 제3장 47.

15) 이이(李珣), 『율곡전서栗谷全書』II 권33, 한국문집총간 45, (민족문화추진회, 1996), p.283.

시내는 수사(洙泗; 孔子의 학문 / 필자 주)의 물결에서 갈라졌고  
 봉우리는 무이산(武夷山; 朱子의 학문 / 필자 주)처럼 빼어났네  
 살아가는 살림은 천 권썸 되는 경전이요  
 거처하는 곳은 두어 칸 집이로구나  
 마음은 쾌청한 날 밝은 달(露月)보다 깨끗하고  
 (선생의) 말씀과 웃음은 광란(狂瀾)을 진정시킵니다  
 소자(小子)는 도(道)를 얻고자 찾아왔으니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1558년 젊은 날의 율곡이 성주(星州)에 왔다가, 강릉으로 가는 길에 도산(陶山)에 들러 퇴계 이황(李滉) 선생을 찾아뵙고 올린 글이다. 퇴계 선생의 학문이 공자(孔子)와 주자(朱子)에 단았고, 생애는 검소하며 마음은 밝은 달 보다 더 맑음을 칭송하고 있다.<sup>16)</sup>

이 시를 차경석에게 읊은 까닭은 잘 알 수 없다. 차경석에게 주자학(朱子學)을 공부하라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증산이 『율곡전서』를 읽었다는 것이며, 어떤 영문인지 이 시를 외우고 있었다고 점이다. - 김형렬이 증산에게 말하기를, “율곡(栗谷)이 이순신(李舜臣)에게 두률천독(杜律千讀)을 읽으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증산은 형렬의 말에 동조하는 글이 보인다.<sup>17)</sup> 증산의 율곡 이해는 성리학 본원이 아닌 술수(術數)적 측면에 치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산사상의 형성에 미친 『주역周易』의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二七六, 九五, 四三八”을 한번 외운다는 이야기<sup>18)</sup>, 혹은 64괘를 모두 암송한다는 기록<sup>19)</sup> 등은 『주역』의 중요성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사실 소옹(邵雍)의 상수학(象數學)도 『주역』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16) 퇴계 이황(李滉)은 율곡의 글에 대하여 “병든 나는 문 닫고 누워 봄이 온 줄을 몰랐는데, 그대가 와서 이야기 하자 마음이 상쾌해졌네.”(病我牢關不見春, 公來披豁醒心神)라고 답하고 있다. cf. 황준연, 『이율곡, 그 삶의 모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64.

17) 『전경』 행록 제1장 32.

18) 『전경』 공사 제3장 28.

19) 『전경』 제생 20.

『주역』이야말로 유교철학의 영향에 있어서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전술한 “二七六, 九五, 四三八”은 이른바 『낙서洛書』 수(數)를 가리킨다.

중국철학사에서 유학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진(秦) 나라 이전의 BC 500년대의 선진(先秦) 유학이요, 또 하나는 12세기 송학(宋學)이다. 인물로 말하면 전자는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유학이요, 후자는 북송 5자와 주자(朱子; 朱熹) 유학이다. 후자는 성리학 혹은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ism)으로도 부른다.

증산이 재세(在世)하였던 조선왕조의 말기, 유학은 이미 생명력을 잃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서 유학의 철학은 무력(無力)하였고, 해체(解體) 직전이었다. 특히 유가의 예절은 시의성(時宜性)을 잃고 한갓 허례허식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증산이 유학의 철학을 사상의 중심구조 삼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증산은 유교 윤리에 대하여 강렬한 반감(反感)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즉, 상부(喪夫) 하여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말하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다.”라고 하고 글을 써서 불사르니 그 글귀는 다음과 같다. “忠孝烈, 國之大綱. 然國亡於忠, 家亡於孝. 身亡於烈.”<sup>20)</sup> 이는 “충·효·열은 나라의 대강이다. 그러나 나라는 충(忠) 때문에 망하고, 집안은 효(孝) 때문에 망하고 몸은 열(烈) 때문에 망한다.”라고 번역된다. 그는 이와 같이 충·효·열의 유교적 가치 때문에 나라와 개인이 망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sup>21)</sup> 이는 유교 윤리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산의 천지공사(天地公事)에 많이 보이는 유교적 연원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유교철학의 인간관은 성인(聖人) 혹은 군자(君子)로 요약된다. 이른바 3황 5제 및 요·순·우·탕·문·무·주공(堯·舜·禹·湯·文·武·周公)의 이야기는 중국 고대의 성인 군주를 말한다. 중국 의고학

20) 『전경』 교법 제1장 46.

21) 김탁, op. ct., p.171.

과(疑古學派)의 노력과 최신의 출토자료에 의하여, 이들 성왕(聖王)이 대부분 전설 속의 이야기로 검증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증산은 이들의 존재를 믿었던 듯싶다. 유교 문화에 젖은 인사들 치고, 이와 같은 성인을 읊어대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 2. 불교의 영향 - 진묵(震默; 1562~1633)과 관련하여

증산 사상의 형성에 불교가 미친 영향은 그의 종교적 체험이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서 이루어 졌음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sup>22)</sup> - 참고로 원불교의 교조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은 영광의 민가(民家)에서 종교적 체험을 얻었고, 『정역(正易)』을 저술한 일부(一夫) 김항(金恒; 1826~1898)은 계룡산에서 영가무도(詠歌舞蹈)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산은 스스로 미륵불(彌勒佛)을 자처하기도 하였다.<sup>23)</sup> 그러나 그가 불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책을 체계적으로 읽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특이한 일은 전대의 고승(高僧)들이 매우 많은데도 그는 유독 조선조 중기의 진묵(震默)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는 진묵과의 관계에 국한하여 그의 불교적 인연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타 불교적 연원은 김탁의 글 ‘공사사상에 나타난 불교적 연원’을 참조하면 도움이 클 것으로 본다.

증산이 한때 전주 교외 봉서산(鳳棲山)에 머물고 있었다. 김봉곡(金鳳谷)이라는 인물이 부근에 있었는데, 증산에 의하면 그는 시기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봉서사의 승려 진묵(震默)은 어느 날 봉곡으로부터 『성리대전(性理大典)』을 빌렸다. 봉곡은 (책을 빌려주지 않으면 될 것을 빌려주고 나서 생각하기를) 진묵이 불법을 통달한 자이라, 만일 유도(儒道)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불법

22) 『전경』 행록 제2장 12.

23) 『전경』 행록 제2장 16.



(佛法)이 크게 융성할 것을 시기하여 빌려준 책을 도로 찾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 후 진목이 상좌에게 “내가 8일을 한정하고 시해(尸解)로서 인도국(印度國)에 가서 범서(梵書)와 불법을 더 익혀 올 것이니 방문을 여닫지 말라.”라고 이르고 입적(入寂)하였다. 봉곡이 이 사실을 알고 절에 달려가서 진목을 찾으니 상좌가 출타 중이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봉곡이 방문을 열으니, 진목의 시신(屍身)이 놓여 있었다. 그는 상좌에게 “어찌하여 시체를 방에 그대로 두어 썩게 하느냐. 중은 죽으면 화장해야한다.”라고 말하고, 마당에 나뭇더미를 쌓아 놓고 화장하였다. 진목이 돌아와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너와 나는 아무런 원수진 것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그러느냐.” 상좌가 진목의 소리를 듣고 울었다. 봉곡은 그 소리를 요귀(妖鬼)의 소리라고 말하고, 손가락뼈 한마디도 남김없이 모두 태웠다. 진목이 소리쳐 말하기를, “너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동양의 모든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옮겨갔다.<sup>24)</sup>

원래 전주 부근에 봉서산이라는 명칭은 없고, 산 이름은 종남산(終南山)이며 그 중턱에 있는 절 이름이 봉서사(鳳棲寺)이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봉동(鳳東) 땅에 한 유학자가 살았는데, 그의 이름은 김동준(金東準; 1575~1661)이며, 봉곡(鳳谷)은 그의 호(號)이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봉곡공묘갈명’(鳳谷公墓碣銘)에 의하면, 그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광해군 시절 그는 의리를 지켰고, 인조(仁祖) 반정(反正)이 있는 후, 사계의 추천으로 의금부 도사, 사헌부 감찰, 한성 판관을 역임하였다.

『진목조사유적고(震默祖師遺跡攷)<sup>25)</sup>』라는 자료에 의하면, 진목은 명종 선조 년간의 인물로, 법휘(法諱)가 일옥(一玉)이며, 진목은 자호(自號)이다. 전북 만경현 불거촌(佛居村)에서 태어나, 생애의 대부분을 전

24) 『전경』 공사 제3장 14~15 / 권지 제2장 37.

25) 이일영(李一影) 편, 『震默大師小傳』(보림사, 1983)에서 인용함.

주 교외의 종남산 봉서사에 머물렀다. 당시 불교계에는 서산(西山)이 중심인물이었고, 진묵은 중심권에서 소외된 시골의 도승(道僧)이었다. 그는 한때 모악산의 대원사(大院寺; 大元寺)에 머물렀다. - 대원사는 증산의 종교적 체험이 이루어진 곳이다. 원래 이 절은 고구려 말엽 보덕(普德) 화상의 제자가 창건하였는데, 정유재란(1597) 때에 불에 탔다. 진묵이 재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묵은 이 절에서 곡차(穀茶)를 즐겨 마셨다. 결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다.<sup>26)</sup>

진묵과 김동준(봉곡)의 교류는 1623년~1633년의 약 10년간으로 추정한다. 진묵은 어느 날, 봉곡으로부터 『강목綱目』한 짚을 빌려서 바랑 속에 넣고 걸으며, 읽다가 읽기를 마치면, 땅에 내버렸다고 한다. - 『전경』에는 이 책이 『성리대전』으로 나온다. - 문제는 증산의 진묵에 대한 인식 태도이다. 진묵이 불법을 통달하였는데, 이제 만일 유도(儒道)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고, 봉곡을 시기하였다는 점이다. 하나의 유추(類推)이지만, 유학자 봉곡이 진묵을 매우 시기하였다는 증산의 인식은 조선조의 유불(儒佛) 관계의 부조화를 반영하는 견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일영(李一影)이 편집한 『진묵대사소전震默大師小傳』<sup>27)</sup>에 의하면(『진묵조사유적고』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진묵과 봉곡 사이에는 전혀 갈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증산은 진묵을 매우 높이 보고 있다. 만일 임진왜란(1592)의 일을 도가(仙)의 인물 최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3일 안에 끝이 났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3개월을 넘기지 않았고, 송익필(宋翼弼; 호 龜峰)이 맡았으면 8개월 안에 평정되었으리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말한다.<sup>28)</sup> 당시 불교계에 쟁쟁한 인물이 많았을 법 한데, 증산은 道의 측면에서 진묵을 불교계의 제1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산(西

26) 황준연, “구름같이 살다간 큰스님, 진묵대사”, 신경림 외, 『한국의 괴짜들』 (영언문화사, 2004)

27) 이일영(李一影) 편, 『震默大師小傳』 (보림사, 1983).

28) 『전경』 예시 73.

山)에 비하여 진목은 당시의 유행에 있어서 소외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 3. 도가(仙)의 영향

증산은 도교(道敎) 혹은 도가(道家)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선’(仙) 혹은 ‘선도’(仙道)라고 말하였다. 그는 철학적인 의미의 ‘도가’와 종교적인 의미의 ‘도교’를 구별하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증산의 ‘선’ 혹은 ‘선도’를 종교적인 뜻으로 받아들인다. - 도교는 중국 후한(後漢) 시대 태평도(太平道)의 형성 이후 조직화하고 발전한 것을 말한다.<sup>29)</sup> 그런데 중국 도교의 뿌리를 한국의 신선(神仙)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도광순) 그러나 필자는 증산이 말하고 있는 ‘선’ 혹은 ‘선도’를 한국의 고유한 신선사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교단으로서의 중국 도교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의 연장선이란 증산이 교단도교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뜻은 아니라, 증산이 주장하고 몸으로 보여준 행동이 교단도교의 행태와 닮았다는 내용이다.

증산이 도교 관계의 서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가 조선 땅에 전래된 중국 도교의 자취를 몸으로 체현(體現)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증산이 몸으로 실천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도교의 방술(方術)과 같다. 도교의 방술은 주술(呪術), 부적(符籙), 기도(祈禱) 등을 포함한다. 그 내용은 복(福)을 바라는 인간 심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몸에 관한 영역이 있어서 양생(養生)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된다.

주술에는 불교에서와 같이 수인(手印)을 짓고 주문을 외우는 방법과 신을 불러 몸을 보호하는 방법, 혹은 악귀나 악령을 막는 법 등이 있다. ‘우보’(禹步法)라고 부르는 주술적인 보행 방법이 있다. ‘우보’란

29) 황준연, 『한국사상과 종교 15강』 (박영사, 2007), p.219.

기묘한 걸음걸이를 말한다. 우(禹) 임금이 홍수를 멈추게 하려고 너무 많이 걸어서 발이 부르텨기 때문에 한 발로 걸었던 것을 본 뜬 것이라고 한다. 『포박자抱朴子』 권17 등섭(登涉)편에 걷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sup>30)</sup> 이는 마치 절름발이의 걸음걸이와 같다. 우보법은 일종의 액막이 방법의 하나이며, 산에 오를 때 또는 약초(藥草)를 캐 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sup>31)</sup>

부적은 재앙과 화를 멀하고 복을 바라는 일, 장수(長壽), 병의 치료 등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다. 종류도 몸에 지니는 것, 실내, 문, 입구 등에 붙이는 것, 각종 의식에 쓰이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산에 오를 때 지니는 입산부(入山符),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몸에 지니는 치병부(治病符), 비가 오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우부(祈雨符) 등이 있고, 심지어 도박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승도부(勝賭符)도 있었다.<sup>32)</sup>

도교의 기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재초’(齋醮)라는 특수 용어가 사용된다. 해마다 일식(日蝕), 홍수, 기아를 몰아내고 태평을 빌기 위하여 황제의 뜻에 따라서 거행되는 금록초(金籙醮), 도교의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옥록초(玉籙醮), 조상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황록초(黃籙醮) 그리고 죄를 지어 생기는 질병을 구제하기 위한 도탄재(塗炭齋) 등이 그것이다.<sup>33)</sup>

증산은 이와 같은 방법을 대체로 차용(借用)하고 있다. 그가 공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매양 종이를 불사르는 방법은 무속(巫俗)의 방법과 중첩되지만, 동시에 도교 방술의 한 가지이다. 그러나 증산이 도교 방술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벽곡법(辟穀法)과 부적(符籙)을 불살라 물에 타서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으

30) 왕명(王明), 『포박자내편교석抱朴子內篇校釋』 권17 등섭(登涉), (中華書局, 1996), p.302.

31) 쿠보 노리타다, 정순일 옮김, 『도교와 신선의 세계』 (법인문화사, 1993), p.115.

32) 쿠보 노리타다, 정순일 옮김, 같은 책, p.135.

33) 황준연, 『한국사상과 종교 15강』, p.228.

며, 용력술(勇力術) 혹은 축지술(縮地術)에 대해서도 반대한다.<sup>34)</sup> - 중국 최초의 교단도교는 후한(後漢)의 우길(于吉)이 조직한 태평도(太平道)이다. 태평도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 앞에서 참회케 하고, 부적(符籙)을 불에 살라서 물에 탄 것을 마시게 하는 치료 방법이 성행하였다.

주술적 방법으로 증산이 즐겨 말하는 것에 태을주(太乙呪)가 있다. 그가 말하기를 충남(忠南) 비인(庇仁) 사람 김경흔(金京訃)이 50년 공부로 ‘태을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주문은 이러하였다. “吡哆吡哆 太乙天上元君 吡哩哆哪都來 吡哩喊哩娑婆啊”<sup>35)</sup> 그런데 이 ‘태을주’는 소수 인연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태인 일대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두 외우는 것이 되었다.<sup>36)</sup> - 김경흔이 혼자 이를 얻었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

이능화의 『조선도교사』에 의하면, 후대의 증산을 받드는 교단에 태을교(太乙敎)가 있었다. 이 태을 교도들의 종교 의식(儀式)에 목욕 재계(齋戒)하고 재물을 갖춘 후에, ‘옥황상제강령지위’(玉皇上帝降靈之位)라는 위패를 모신다. 그리고 ‘태을주’를 외운다. 외우는 정도가 매우 심하여 피곤하여 쓰러질 때까지 한다.<sup>37)</sup> 여기에서 ‘옥황상제강령지위’는 증산을 가리키고, 그들이 외우는 ‘태을주’는 상기의 주문을 말한다. - 태을교는 증산 사후 고부인(高夫人; 1880~1936; 본명이 고판례高判禮이다. 차경석의 이종 누나이다.)이 증산 사후에 창립한 교파이다. 1914년 이후는 차경석이 실권(實權)을 장악하고, 고부인은 소외된다.<sup>38)</sup>

증산은 여러 차례 ‘무위이화’(無爲而化)를 언급하고 있다. 증산을 따르는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증산에게 말하면 저절로 풀렸다는 이야기<sup>39)</sup> 생·장·렴·장(生長斂藏)의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34) 『진경』 예시 75.

35) 『진경』 교운 제1장 20.

36) 『진경』 공사 제3장 28.

37) 이능화, 『조선도교사』 제28장 태을교 행의(行儀), (보성문화사, 1977), p.336.

38) 김홍철·김상일·조홍윤 공저, 『한국종교사상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p.87.

‘무위이화’라는 이야기<sup>40)</sup>, 그리고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 스리는 데 현묘한 공(功)이 이룩된다는 ‘무위이화’의 이야기가 그것이다.<sup>41)</sup> - 김탁은 증산이 도가철학의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무위이화’를 곧 ‘무위자연’으로 이해해야 한다. - 이렇게 본다면 증산이 노자(老子)의 정신에 합당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증산은 철학적인 ‘도가’ 보다는 종교적인 ‘도교’의 세계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교에 관한 한, 그 종교가 지양하는 바는 지식인 그룹보다는 기층 민중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택하였고, 또한 고도하고 난해한 지식 체계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 - 예컨대 신선(神仙), 역(易), 방술(方術), 도참(圖讖), 점복(占卜), 무축(巫祝), 천문(天文), 둔갑(遁甲), 음양오행, 의학(醫統) 등이 혼재됨 - 이 조화된 구조를 보여주었다.

#### IV. 동양 전통철학에서 바라본 대순(大巡)사상의 의의

‘대순’(大巡)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개념은 『서경書經』 주서(周書) 태서(泰誓) 下에 보이는 “그 다음날 왕이 육사(六師)를 크게 순행(巡行)하여 여러 군사들에게 분명하게 맹세하였다.”<sup>42)</sup>라는 글에 근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는 군대를 사열한다는 좁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 평샤오핑(鄧小平)이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개혁·

39) 『전경』 행록 제4장 52.

40) 『전경』 교법 제3장 27.

41) 『전경』 예시 73.

42) 『서경書經』 주서(周書) 태서(泰誓) 下. 원문은 “時厥明, 王乃大巡六師, 明誓衆士”이다. cf. 『書經集傳』 下 (전통문화연구회, 1998), p.26.

개방을 강조하였듯이, 증산 또한 남조선을 순례하고 있다. 증산의 남조선(南朝鮮) 운운은 ‘국지성’의 표현일 수 있으며, 동시에 남조선 순례일 수도 있다. 그는 『전경』 예시 14에서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명월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라고 읊고 있다.

‘대순’(大巡)은 증산을 만나면서 천하를 크게 순례(巡禮) 한다는 말로 확대 되었고, 철학적 범주(카테고리)에 들어섰다. 증산이 언급하고 있는 ‘대순’은 그의 시대 어떤 조선인도 말하지 못한 공간(space) 개념이 들어있다. 김형렬에게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3)</sup>

○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나 뿌리 깊은 유교의 폐습으로 말미암아 개혁을 할 수 없었다.

○ 그는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다.

○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를 베풀었다.

○ 서양의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지만,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천리(天理)를 흔들어서 놓았다.

○ 서양의 문물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죄악을 저질러,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인류와 신명계가 겁악을 구천(九天)에 하소연하였다.

○ 증산이 몸소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였다.

○ 조선 땅에 와서 모악산 금산사(金山寺) 3층전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30년을 지냈다.

○ 최계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나, 그는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 1864년(甲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1871년(辛未)에 몸소 강세하였다.

43) 이하 『전경』 교운 제1장 9 참조.

이상의 내용은 ‘대순’의 스케일을 보여준다. 그가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였다는 것은 범지구적 차원의 관찰이다. 증산의 ‘대순’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지구적 차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 구조는 철저히 한국인 본위(本位)의 세계관으로 일관하였다. 이정립은 일찍이 『대순철학大巡哲學』이라는 저술을 하면서, “한국인 본위의 세계관”이라고 부제(副題)를 달았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천하의 순수(巡狩)는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서 시작하였으나, 종결은 한반도로 좁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김종서는 ‘국지성’(局地性)이라고 표현하였다.<sup>44)</sup> 그리고 국지성의 타파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필자도 대순사상의 국지성 극복이 향후 과제라고 믿는다. 이는 대순사상 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동양의 전통철학도 문명의 대세에 밀려서 국지화(局地化)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하나의 철학사상이란 스파게티 혹은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 맛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다. 한 때 무슨 별레처럼 인식되어 천대받았던 한자(漢字)가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느낌이다. 동양 전통철학에서 바라본 대순(大巡)사상의 의의는 한자 혹은 한문(漢文)의 운명과 궤도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필자가 머리말에서 언급한 범주(카테고리)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순’(大巡)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이며, 이 사상이 국지성을 탈피하고 글로벌한 개념으로 발전하려면, 동양 전통철학의 부활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대순사상의 ‘보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하여 신비주의의 옷을 벗고, 인간 이성에 호소하는 철학화(philosophierung)의 길을 탄탄히 걸을 때, 대순사상은 진정한 세계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44) 김종서, “더 넓은 ‘대순사상’의 이해를 위하여”, 『대순진리학술 논총』 제1집, 대진학술원, 2007.



## 【참고문헌】

- 『典經』,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9.
-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대학교 부설 대진학술원, 2007.
- 『대순사상논총』 제19집, 대진사상학술원, 2005.
-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1.
- 『大學·中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1.
- 『書經集傳』 상, 하, 전통문화연구회, 1998.
- 김탁, 『증산 강일순』, 한국학술정보, 2006.
- 김홍철·김상일·조홍윤 공저, 『한국종교사상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이정립, 『大巡哲學』, 증산교 본부, 1984.
- 이기상, 『철학노트』, 까치, 2002.
- 안동립 역주, 『莊子』 현암사, 1993.
- 李珥,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 45, 민족문화추진회, 1996.
- 李一影 편, 『震默大師小傳』, 보림사, 1983.
- 王明, 『抱朴子內篇校釋』, 中華書局, 1996.
- 쿠보 노리타다, 정순일 옮김, 『도교와 신선의 세계』, 법인문화사, 1993.
- 이능화 輯述, 이종은 역주,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1977.
- 신경림 외, 『한국의 괴짜들』, 영언문화사, 2004.
- 황준연, 『한국사상과 종교 15강』, 박영사, 2007.
- 아놀드 토인비, 강기철 역, 『圖說 역사의 연구』 (1972년 수정판) 일지사, 1978.
- Bertrand Russel,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Unwin University Books, 1969.
- Ludwig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Routledge & Kegan Paul, 2002.
- Robert Nozick, *Philosophical Explan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Roger T. Ames, Henry Rosemont, Jr., *The Analects of Confucius*, Ballantine Books, 1998.

▪Abstract▪

## The Meaning of Daesoon Thoughts on the Basis of Asian Traditional Philosophy

**Joon-Yon Hwa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ang Jeung-san whose real name is Kang Il-soon was a Korean born thinker who thought himself as Shangti(上帝). It is told that he made a Great Tour(大巡) upon this world. His thought was affected by Asian traditional philosophy such as Confucianism, Buddhism and Daoism. He founded a religious body, called Jeung-san-Gyo which could be formed a syncretism of East Asian traditional thoughts.

We have to survey Asian traditional thoughts in order to understand Kang Jeung-san's religious thinking. According to the Great Tour Scripture(大巡典經), he have read Confucian moral books, holy Sutra of Buddha and the books of Daoism. In the field of Confucianism, he stressed upon the Book of Changes (Zou-yi; 周易). And for Buddhism, he showed great concern on a monk, Jin-mook(震默) who lived 15th century in Chosun Dynasty.

Jeung-san Shangti followed Daoistic way when he performed religious ritual. In case of performance, he was compared as a great Shaman who wanted to save the world. And the most typical

ritual was called public business of Heaven and Earth(天地公事). He showed a great scale while he was touring the world in space.

The most important thing, however, is to overcome the localization which seems still prevailing doctrine of the Jeung-san thought. For this, the followers of Jeung-san-Gyo should study world philosophy and accept the modernity so as to broaden Jeung-san thought to the rest of the world.

**Keyword** : Confucianism, Buddhism, Daoism, Daesun Thought, philosophy, category, metaphysics, epistemology, value, Matteo Ricci, Jeung-san, Great Itineration(大巡), Shangti (上帝)

◎ 투 고 일 : 2009년 7월 6일

◎ 심 사 기 간 : 2009년 7월 22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09년 8월 8일

